

OECD국가의 성평등 교육정책¹⁾

정 해 숙 (선임연구위원)

최 윤 선 (위촉 연구원)

<목 차>

I. 서 론

II. 각국의 성평등 교육정책

III. 각국의 여성교육현황 및 성평등 교육정책 비교분석 및 논의

IV. 결 론

1.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발족과 더불어 교육부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의 설치에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 기획·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은 남녀학생에게 동등한 기회와 성취를 보장하는 교육과 양성평등한 교직문화의 형성을 정책비

전으로 제시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성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마음껏 키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을 천명하고 있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의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그 동안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온 교육에서의 평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즉 교육에의 접근 기회의 평등으로 인식하여 왔던 것에서 커다란 정책적 전환을 보인 것이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취학을 또한 남녀 모두 100%에 가까운 완전 취학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나 고등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남녀학생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교육체제는 곧 교육기회의 평등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게다가 여학생 또는 남학생에게만 제공되어 온 일부 교육프로그램들조차도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의 품성이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바람직한 교육활동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도 당위성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은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정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국가의 교육정책을 총괄 수립, 추진하는 교육부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교육 접근에의 형식적 조건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인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신설된 주무부서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라는 직제명을 갖게 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육부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또한 성차별적 교육활동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른 5개 부처와 함께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여성교육정책이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 평등 교육정책으로서 주류의 국가 정책으로 통합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가 및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이 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찍이 교육활동에 내재한 성차별문제를 제거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선진 각국에서의 성평등 교육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공동 대응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다른 나라의 정책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돌아보게 할 필요성을 중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주요 선진 각국이 안고 있는 교육부문에서의 성간 교육격차와 차별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성평등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나라

성평등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B.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수집과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을 기초로 한 문헌연구로 수행되었다. 기존 교육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성별 분리 통계 현황이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을 통해 각국의 홈페이지 및 UN 여성관련 기구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각국의 성별 교육현황 및 성평등 교육정책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8개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는 인터넷 검색과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여성교육문제나 여성문제를 연구중인 박사과정생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는 각국의 담당자에게 e-mail을 보내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1. 연구대상 국가의 선정

본 연구를 위한 대상 국가로는 OECD 국가 중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핀란드, 스웨덴이 선정되었다. 이들 국가의 선정은 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타고난 잠재력과 관심을 충분히 개발하여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1) 인간개발의 진보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2) 인간개발 정도에 있어서 남녀간의 격차가 적어 평등하며, 3)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이 높고 4)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UNDP가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인간개발의 진보 정도를 보여주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와 인간 개발정도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성 정도를 나타내는 남녀평등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ex)가 상위 15위안에 속하는 국가로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 나라보다 높은 국가를 선정하였다.

〈표 1〉 비교대상국가의 관련지표

	인간개발지수 (HDI)	남녀평등지수 (GDI)	여성권한척도 (GEM)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999)
캐나다	1	1	8	69.6%
노르웨이	2	2	1	76.3%
미국*	3	4	13	71.7%
호주*	4	3	11	64.4%
아이슬란드	5	5	2	54.9%
스웨덴*	6	6	3	74.6%
벨기에	7	7	10	57.8%
네덜란드	8	8	7	64.5%
일본*	9	9	41	63.8%
영국*	10	10	15	67.5%
핀란드*	11	12	5	71.3%
프랑스*	12	11	-	60.8%
스위스	13	13	14	70.3%
독일*	14	15	6	62.8%
덴마크	15	14	4	75.8%
한국	31	30	63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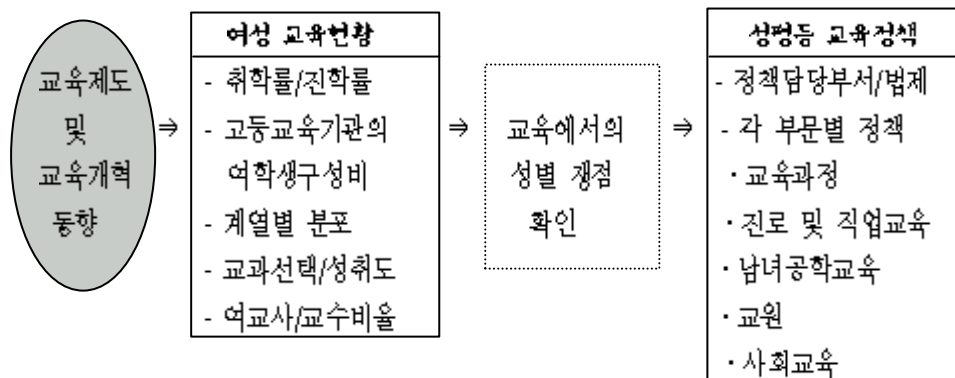
출처 : UNDP(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OECD(2001), *OECD in Figures 2001*.

2.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림 1>과 같은 개념적인 틀에 의해 진행되었다. 먼저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들의 교육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단, 분석하였다. 각국의 교육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교육에의 접근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educational process)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성별 격차나 차이, 불평등이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였

다. 이를 위해 각국의 성별 교육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교육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각국의 교육제도와 교육개혁 동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국에서 그 나라 고유의 교육에서의 불평등이나 성별 교육격차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성평등 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평등 교육정책이라 함은 교육에의 접근 기회 및 교육의 과정(educational process), 결과에 이르기까지 양성간의 평등의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성별 관계(gender relation)를 재정립,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련의 교육정책을 말한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틀

II. 각국의 성평등 교육정책

A. 일 본

1. 여성교육 현황

일본의 여성교육현황을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기회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으나, 고등교육단계에 이르면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00년 현재 2~3년제 단기대학은 여학생이 90%를 점하고 있어 여성 전용 대학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반면, 4년제 대학은 남학생이 3분의 2

를 점하고 있다. 대학원교육기회 또한 4분의 3이 남학생에게 배분되고 있어 상위 고등교육단계로 올라갈수록 교육기회의 성별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및 단기대학, 대학 등에서 학생들이 받고 있는 전문교육을 보면, 고등학교단계에서는 ‘간호,’와 ‘가정’분야에, 단기대학에서는 ‘가정,’ ‘교양,’ ‘교육,’ ‘보건,’ ‘인문’분야에, 대학에서는 ‘가정,’ ‘예술,’ ‘인문’분야에 여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공업’이나 ‘공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는 여학생을 거의 찾기 어렵다. 이는 교육기회의 배분과정에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기반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상황을 보면, 취업률의 경우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에서는 취업률의 성별 차이가 거의 없으며, 단기대학에서는 오히려 여학생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단기대학을 졸업한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율이 더 높은 것과 다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급학교의 여교원 비율을 보면, 고등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전학교급에서 여교원구성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0년 현재 초등학교는 62.3%, 중학교 40.6%, 고등학교 25.2%, 고등교육기관 15.9%이다. 초·중등단계에서 학교행정가로 진출한 여성비율은 소학교에서만 교장직에서의 여성 비율이 10%를 넘어서었을 뿐, 중, 고등학교는 3%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성평등 교육정책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정책국소속 남녀공동참여학습습과가 주관과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1977년 「국내행동계획」이후 현재 추진중인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추진된 성평등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분야에서는 가정과교육의 남녀공동이수와 공민과, 가정과에서의 남녀평등교육내용의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진로·취업지도와 관련하여서는 여고생과 여대생에 대한 진로의식 계발 및 취업지도를 위한 심포지엄, 전국취직지도가이드스 등이 개최되었다. 교원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남녀평등의식교육 실시가 주요 정책으로 실시되었으며, 사회교육분야에서는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남녀공동참여학습 촉진 사업, 청소년, 성인남녀, 신혼 및 임신기 남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생애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의 추진 등과 관련한 세부정책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본의 성평등 교육정책은 생애학습의 차원에서 주로 남녀공동 참여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기회의 성별 격차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교육 기회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大橋美枝子(1999)는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불충분하지만 남녀평등추진시책이 행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문부성이 발표한 2002년부터 실시 예정인 신학습지도요령에는 남녀평등

교육의 구절은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과서에 내재한 성차별적 교육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氏原陽子, 1996; 伊東良徳, 1992; 伊東良徳 외, 1991)이 계속되고, 남녀공동 참여 사회를 지향하는 일본에서 여성의 낮은 학교관리직 진출도에 대한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음에도(池木清, 2000), 학교교육에 내재한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에 내재한 성차별적 교육실태를 분석한 池木清(2000)은 공적인 학교교육의 장에서 왜 이렇게 까지 성차별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있을까 자문하고 최대의 원인은 중앙, 지방을 통해 교육행정당국의 대응이 너무나 늦어진 점에 있다고 결론지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 미 국

1. 여성교육 현황

미국 또한 초·중등교육 접근기회의 성간 형평성이 실현된 가운데, 고등교육 분야의 취학률은 여성이 높아 1995년 현재 남자 71.0%, 여자 92.0%를 보이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여학생 구성비를 보면, 1998년 현재 56~57%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석사,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구성비는 각각 57.1%, 42.0%에 달해 고급 전문인력 양성단계에의 여성 진입 또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별 구성비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컴퓨터 정보과학, 공학, 물리학이나 수학, 농학과 자연자원에서 학위를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공분야별 성별 분리 현상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이후 노동시장에까지 연장되어 여성들이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고급인력양성단계에서 나타나는 전공편중 현상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 비록 여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수학과 과학교과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과목자체에 대한 흥미보다는 과목의 필요성에 기인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과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녀학생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보면, 남녀 비슷한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다가 17세를 기점으로 남녀간 성취도의 차이가 커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급학교의 여교원 비율을 보면, 1995/6년 현재 초등학교는 86%, 중등학교 56%로 초등 여교원 비율에 비해 중등여교원의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기관별 여교수 구성비는 1995년 현재 39%에 달한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유형별(1990)로는 대학에서의 여교수 비율(31%)이 기타대학의 여교수 비율(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등교육기관의 직위별 여교수

구성비를 보면(1992), 전일제 여교수 비율(33.2%)에 비해 시간제 교수의 비율(44.6%)이 높고, 직위가 높을수록 구성비가 낮아진다. 계열별 여교수 분포는 교육학(51.1%), 보건학(50.1%), 인문학(41.4%) 분야의 여교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공학 분야는 단지 6.1%에 그치고 있어, 특히 이 분야의 여교수 진출이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2. 성평등 교육정책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교육부 아래, 시민권 사무과(Office of Civil Right), 교육연구 및 개선과(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연구 및 개선과 아래 있는 여성교육평등법 지원센터(WEEA Equity Resource Center)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교육평등법 지원센터에서는 성평등한 수업을 위한 각종 자료와 연구, 사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이 제정된 이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이 있어왔다. 또한 성평등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자체 기준을 개발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성평등 교육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용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성평등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분야에서는 교과서 및 교재의 성전형성에 관한 지역교육청의 검토 및 이에 대한 연구, 성평등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 자료집 발간, 남녀평등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교육 정책, “Playtime is Science”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었다. 진로·취업지도와 관련하여서는 고등교육기관 입학 및 재정상의 차별철폐 정책, 수학과 과학에서의 성차에 대한 WEEA의 권고, 과학분야 교사 프로젝트, ASPIRE(Alabama Supercomputing Program to Inspire Computational Research in Education) 프로그램, 진로선택 교육과정(Career Choice Curriculum), FT&T(Family Tools and Technology) 프로그램, 비전통적인 분야로의 직업교육 정책, ONOW(Orientation to Nontraditional Occupations for Woman)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었다. 체육활동 관련해서는 체육활동에 대한 WEEA의 권고를 들 수 있으며, 교원분야와 관련해서는 EQUALS 프로그램, A Woman’s Place...is in the Curriculum, National Woman’s History Project, 공평함을 유지하기(Succeeding at Fairness) : 모든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성의식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정책, 여교수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이 있었으며, 성희롱, 성폭력 관련은 효과적인 성희롱 정책 개발 요소를 밝히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WEEA의 권고 등이 있다. 끝으로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

미국의 성평등 교육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1972년 교육수정법 제 9장 이후 취해진

조치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9개 분야별 성과와 미흡한 점, 앞으로 개선되어야 사항 등이 지적되어 있다. 그 9개 분야는 ‘고등교육에의 접근,’ ‘체육활동,’ ‘직업교육,’ ‘고용,’ ‘학습환경,’ ‘수학과 과학,’ ‘성희롱,’ ‘표준화 검사,’ ‘임신과 임신한 여학생에 대한 처치’이다. 바로 이 9개 분야가 미국여성교육정책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장에서 제시된 이슈들 중 가장 많이 개선된 것은 여성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분야를 들 수 있으며,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것이 학교에서의 성희롱 문제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교육기회의 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교육기회의 배분에 있어서는 남녀가 차이가 매우 크고, 이것이 이후 직업 및 경제활동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학교급별로, 또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교육정책 중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임신한 여학생들에 대한 조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임신한 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고, 이들이 이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그들이 출산한 아이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여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교육정책 중 재정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미국 성평등교육정책의 특징이며, 장점이라고 보여진다.

C. 영 국

1. 여성교육 현황

영국은 1994년부터 중등교육단계까지 남녀 모두 완전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교육단계에서는 1990년 이후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더 높아져 1996년 현재 여자의 고등교육취학률이 56.0%로 남자보다 7%포인트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 성별 전공 분리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학생들은 ‘언어학,’ ‘교육학,’ ‘의학관련 전공’ 분야에는 여학생구성비가 70%를 넘어서고 있지만, ‘공학, 기술,’ ‘컴퓨터,’ ‘건축, 설계’ 분야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20% 전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기회의 배분과정에 여전히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에 기준을 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보면, 의무교육단계 전반에 걸쳐 여성의 학업 성취 수준이 남

성에 비해 높은 가운데, 수학, 과학 교과와 경우엔 그 차이가 비교적 적은 반면, 예술 및 언어 계통의 경우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뚜렷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급학교의 여교원 비율을 보면, 유아 및 초등교육기관은 84.1%, 중등교육기관 52.6%, 고등교육기관 35.6%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여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여교원 비율이 35.6%에 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2. 성평등 교육정책

영국의 성평등 교육정책은 미국과는 달리 남녀간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인 평등기회위원회(EOC,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OC는 교육과 훈련을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고, 교육관련 전반에 걸쳐 성평등 관련 연구 및 사례 등을 보급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등을 통해 교육에서의 성평등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외에 교육기술부 청소년·학습담당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Young People and Learning)과 기준 및 효과성과(Standards and Effectiveness Unit)에서 전반적인 성평등 문제나 남녀학생의 성취수준 관련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자격 및 교육과정원(The Qualification and Curriculum)과 학습과 기술 협의회(The Learning and Skill Council) 등은 교육과정과 직업진로 지도 등을 통해 성정형성을 개선하고 각종 남녀평등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져온 교육에서의 성평등 정책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분야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성차별 배제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국가교육과정의 적용, 학교심의회의 교과과정정책 등이 추진되었으며, 진로·취업지도와 관련해서는 교육경력 향상 제도 및 안내 책자 발간, 대학에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직업선택에서의 성차를 극복하기 위한 EOC의 연구 및 조치, 과학 공학실의 SET프로그램, 커넥션 서비스, 과학과 기술 분야의 여성 참여 촉진을 위한 기타 정부의 지원책 등이 있다.

영국의 교육정책은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성정형성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성정형성이 이후 진로와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성평등 교육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학교장에게 정부의 평등기회정책이 학교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과 업무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표방하면서, 그 중요한 축의 하나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남녀 학생이 이후 성인으로서의 공적인 삶이나 직업적 삶에서 자신의 성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D. 호 주

1. 여성교육 현황

호주는 1995년 이후 남녀 모두 100%가 넘는 중등교육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교육 취학률을 또한 높아서 1997년 현재 남자는 77.0%, 여자는 83.0%에 달한다. 특히 여자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남자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은 주로 고등교육에 등록하는 반면, 남성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주로 등록하며, 중등교육을 받고 학교를 떠난 남학생이 취업에 더 용이한 노동시장 환경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¹⁾

직업훈련과정이나 견습생 및 훈련생과정에서의 여성구성비는 각각 47.9%, 31.2%로 남성보다 낮을 뿐 아니라, 훈련분야 역시 보건, 지역서비스(69.4%),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64.7%)분야와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분야에는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반면, 공학, 측량(11.2%) 건축, 구조(10.9%)와 같은 남성적인 분야에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훈련직종에서도 유사해서 기계, 전기, 건설, 자동차 등의 영역에서는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사무, 판매 및 서비스직종은 72.4%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성별 전공분리 현상은 재연되어, 교육분야는 75.6%, 의학, 보건분야 74.1%, 인문학, 종교학 69.2%의 여학생구성비를 보이는 반면 공학분야는 15.3%에 불과하다.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성별 교과선택 양상을 보면, 남학생들은 물리학, 컴퓨터, 기술, 농업 등의 과목을, 여학생은 생물 및 기타과학, 외국어, 가정 등의 과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와 관련한 정보기술교과는 의무교육 이후 교육단계에서 보다 많은 남학생이 선택하며, 이러한 차이는 1990년대 내내 계속 증가해왔다(Collins, Cherry, et als, 2000).

초·중등교육에의 여교원구성비는 각각 78.0%, 54.1%로 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고등교육기관에는 35.5%로 전체의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고등교육기관에의 여교원구성비가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직위별 분포에서도 선임강사 및 강사급과 같이 비교적 상위직급에서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Lamb와 McKenzie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조기 학교중퇴 후 7년까지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에 학교를 중퇴한 남학생의 75%, 12학년에 학교를 떠난 남학생의 79%가 정규직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여학생은 조기 중퇴자의 49%, 12학년 졸업자의 69%에 그쳤다(DETYA (2000a). *THE EDUCATION OF BOYS*).

2. 성평등 교육정책

호주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에 학교에서의 성평등 문제를 다룬 최초의 보고서인 「여학생, 학교와 사회」발간 이후 학교교육에서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987년의 「호주 여학생을 위한 국가시책」, 그리고 1993~199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전국 여학생 교육실행 계획」, 1996년 입안된 「호주 학교 성 평등체제」로 이어지는 호주의 성평등 교육정책은 교육과정, 학교 환경, 성희롱, 진로 및 직업교육 등 정책 우선사항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정책의 내용과 범위가 기존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일례로 초기 계획에서 수립되었던 ‘여학생에 호의적인 학교 환경’ 정책 방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긍정적·지원적·문화적 환경 개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성차별적 구조로 인한 여학생 교육의 문제 뿐 아니라 남학생 교육문제까지 함께 접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학생집단이나 남학생집단 모두 동결적인 집단이라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동성간에도 서로 다른 교육요구와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이와 같은 성평등 교육정책은 여학생의 교육적 소외나 차별 해소에 머물러 있는 여성교육정책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성(gender)과 성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교육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E. 독 일

1. 여성교육 현황

독일의 경우 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취학률은 100%를 넘어서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에의 취학률은 1996년 현재 남자 50.0%, 여자 44.6%로 남녀 모두 비교적 낮은 가운데,²⁾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취학률이 남자보다 낮다. 1999년 현재 대학신입생의 경우 여학생구성비가 48.5%에 달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45.3%, 대학졸업생의 42.2%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사학위자의 경우에는 33.1%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기관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 보통교육과 상급직업교육과정으로의 진학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서는 여학생구성비가 43.8%이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학교에서는

2) 고등교육기관에의 취학률이 낮은 것은 독일의 대학이 아직까지는 대중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박덕규 외, 2000).

54.4%에 달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고등교육 자격을 갖추고, 더 높은 등급으로 인문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졸업한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공학, 수학 및 과학분야에의 여학생 기피현상은 중요한 여성교육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도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어 오지 않은 직업교육에의 여학생 참여 증진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9년 현재 9.8%에 불과한 대학의 여교수 비율 또한 중점적인 정책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2. 성평등 교육정책

이와 같은 여성교육 현황에 대한 문제 인식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의 성평등 교육정책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기회 달성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정보화 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비전통적 직업교육분야로의 여성 참여 촉진 정책, 고등교육기관에의 학생 및 교사, 연구자로서의 여성참여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 및 직업에서의 성별 분리현상이 직업교육의 성별 분리에서 유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여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기술교과 및 이들 전공분야에 더 많이, 더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통적 직업영역으로 여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이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정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서 중등단계에서의 남녀공학교육이 진정으로 남녀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남녀공학교육이 1970년대에 도입된 독일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거듭되고는 있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공학교육이 전통적인 성역할 관계를 재생산하며 여학생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중등 시립학교에 남녀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학생 문제전담부를 설치하고 수학 및 과학, 체육교과에서의 남녀 분리 수업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반성적 남녀공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자대학이 시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여학생만이 다니는 여자김나지움이 만들어진 것 또한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수직 및 연구직에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학에 여성문제전담부를 두고 여성이 교수직에 오를 수

3) 독일국가행동계획(1996). www.un.drg.esa/gopher-data/conf/fwcw/matrep/NatActPlans/germany/GeRMA1p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과 지원정책이 두드러진다. 여자교수비율이 9%정도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교수와정예의 진입에서부터 가사 등 가정문제로 연구를 중단한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도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교육단계에서는 수학 및 과학, 공학분야로의 여학생 진출과 관련하여 펼쳐지고 있는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논쟁과 이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성적 남녀공학정책 또한 주목할 만하다.

F. 프랑스

1. 여성교육 현황

프랑스의 여성교육 현황을 보면, 1990년 이후로 중등교육까지 완전취학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취학률(1996)은 여자 57.0%, 남자 45.0%로 여자 취학률이 12.0% 포인트 더 높다.

계열별 여학생 분포를 보면, 전문대(1999/2000)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학 분야의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2차 교육에서의 여학생 비율은 20.0%로 매우 저조한 편이며, 이에 비해 회계 및 정보관련 3차 교육의 여학생 비율은 54.7%로 여학생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차 교육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밝아 보이는 정보과학(15.8%)과 통신산업서비스(32.8%)의 경우엔 여성비율이 매우 낮다. 대학의 전공별 여학생 분포 역시 성별 분리 현상을 보여 주로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문학(73.3%)과 언어학(75.5%)에서의 여학생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기술공학(22.1%)이나 사회체육학(32.3%), 건축학(34.7%)와 같이 남성적 전공영역으로 인식되는 분야의 여학생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각급학교 여교원 비율을 보면, 1997년 현재 초등교육 79%, 중등교육 59%, 고등교육 34%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직급별 여교수 분포는 교수 14.2%, 부교수와 조교수 36.5%이며, 학과별 비율을 보면, 특히 과학 분야의 여교수 비율이 저조해 9.6%에 불과한 실정이다.

2. 성평등 교육정책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여성권리부와 함께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권리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직업에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서 반 성차별적인 교육을 발전시킬 것을 중요한 목표

로 삼고 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교육을 통해 여학생들의 직업의 폭을 다양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성평등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분야에서는 교과서상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진로·취업지도와 관련하여서는 여학생 지도의 다양화를 위한 장기 계획, 프랑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주요 계획인 제니송의 제안 21, 과학분야 여성 연합회의 활동 지원 및 여성과학자 모델 제시, 비전통적 영역으로의 여학생 진로 촉진 정책 등이 취해졌다. 남녀공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당면시 되어온 남녀공학제도가 사실상 여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어,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그 밖에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안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성평등 교육정책 중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간 민주주의 원칙에서나, 남녀평등을 위한 교육에서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남녀공학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Marie Duru-Bellat, 1999; Annick Durand-Delvigne, 1999; Nicole Mosconi, 2000)와 일반교육에서 여성들이 성공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으나, 이후 진로 선택 과정에서 결국 전통적인 진로선택의 경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과학이나 공학 분야, 정보통신 분야 등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직업세계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이다.

G. 스웨덴

1. 여성교육 현황

스웨덴 역시 중등교육단계까지 교육기회의 성간 격차는 없으나, 고등교육단계에 이르면 여학생의 취학률이 57%로 남학생(43%)보다 더 높다. 그러나 대학원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남녀간 반대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1997/8년 현재 남녀 박사학위 수여자의 비율을 보면, 남학생(68%)이 여학생(32%)의 2배에 이르고 있다.

후기 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서 여학생들이 받고 있는 전문교육을 보면, 후기 중등학교의 경우 ‘보건’(86.6%), ‘수예’(83.4%), ‘아동 및 여가’(74.5%) 분야에 여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기공학’(1.4%), ‘건축’(2.0%), ‘에너지’(2.8%), ‘운송공학’(3.0%)분야에서는 여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등교육의 경우 역시 ‘가정학’(89.0%), ‘의료 및 보건’(78.7%), ‘교육학과 교사교육’(76.1%)분야에는 여학생들이 집중되어 있으나 ‘기술관련 직업’(12.3%), ‘공학’(19.2%), ‘수학·컴퓨터’(28.1%)분야의 경우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기회의 배분과정에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기반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급학교의 여교원 구성비를 보면, 1996/7년 현재 초등학교는 73%, 중등학교 64%, 고등교육기관 35%이다.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여교원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으며, 1998년 고등교육 분야의 직급별 여교원 구성비를 보면, 실제 교수 비율은 11%에 그치고 있다.

2. 성평등 교육정책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성주류화의 일환으로 교육부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히 교육부의 고등교육부와 국가 고등교육부는 개별 전공에 따른 성적 불평등 문제와 고등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분야에서는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의 성평등 촉진, 공공가치 프로젝트, 교육활동에서의 성평등 관련 지식의 통합, 성관점에 입각한 수업의 발굴 및 보급, 대학 코스에서의 성평등 문제 통합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진로·취업지도와 관련해서는 성에 기초한 학업 선택 장려, 여학생 대상 기술특별코스 및 임시강좌 개설, 기술직업교육과 여성참여 촉진 방안 등의 정책이 이루어졌다. 남녀공학과 관련해서는 여학생을 위한 실험적 임시 학급 개설을 하였다. 교원정책에서는 교사교육과 교장 훈련에서의 성평등 강조, 여교수 비율 향상을 위한 정책과 학교에서의 남성 비율 증진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대학에서의 성관련 연구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 연구 자문회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성평등 교육정책은 초·중등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과 활동에서 성평등이 중요한 목표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등교육분야에서는 특히 전공별 성분리 현상을 개선하고, 대학에서의 여교수 비율을 증진하며,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 핀란드

1. 여성교육 현황

핀란드(1996) 또한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여학생 취학률이 80.0%로 남학생보다 12% 포인트나 더 높으며, 후기중등학교(56.9%)와 기술전문학교(54.5%), 종합대학교(52.4%)에서의 여학생구성비

또한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육부문은 핀란드 사회에서 가장 성 평등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기관과 대학에서 여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을 보면, 여학생들은 주로 건강과 복지, 교육, 서비스, 인문학과 교육 분야를 공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공학, 생산, 건축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러한 양상은 직업교육, 단기대학, 종합대학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는 교육기획의 배분과정에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성평등 교육정책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사회·보건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성평등 촉진을 위한 행동 계획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책임과 실현은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져 성평등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분야에서는 교육목표로서의 성주류화 정책,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성평등 추구, 성평등 관련 미디어 비평 교육, 보건 및 성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진로·취업지도와 관련해서는 여학생 진로상담, 물리 특별과정 개설 프로젝트, BRYT 프로젝트, 성에 기초한 학과 선택 개선을 위한 대학의 노력, 'Pimms' Skills in Maths and Natural Sciences in 2002' 프로젝트, 대학의 학문적 직업 교육을 통한 다양한 학과 선택 전략,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등의 정책이 이루어졌다. 체육활동과 관련해서는 성평등을 촉진할 만한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책 및 성평등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대학의 성별 할당제, 'NORDLILIA'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에게 남녀평등 교육훈련 실시, 기타 여성연구 중진을 위한 정책을 펴오고 있다.

핀란드의 성평등 교육정책은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성평등은 교육본연의 목적의 일부로서 교실과 교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추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관련 지식이나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정보나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 밖에 핀란드는 후기 중등교육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 및 직업 관련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직업교육전공 과정을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전공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선택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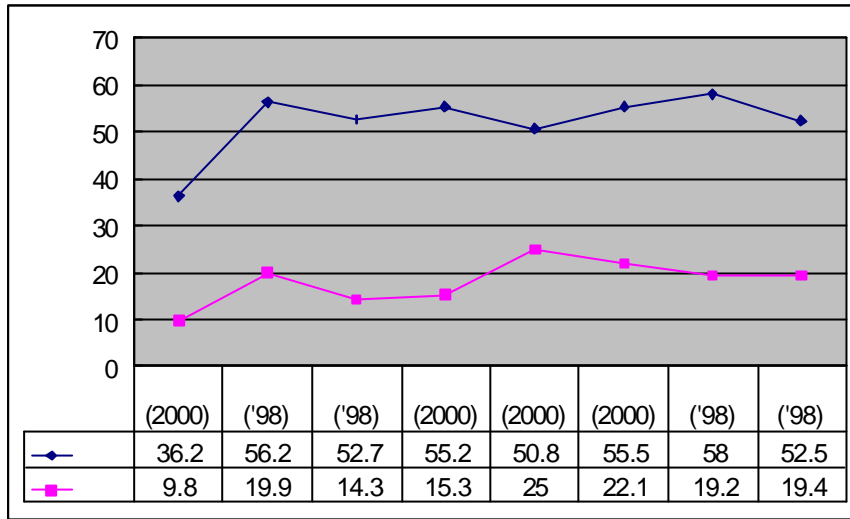
III. 각국의 여성교육 현황 및 성평등 교육정책 비교분석 및 논의

A. 각국의 여성교육 현황 비교·논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8개국은 중등교육단계까지는 완전취학률을 보이거나 고등교육기회의 수혜 및 성간 격차는 나라마다 비교적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높은 취학률을 보인 미국의 경우 여성의 취학률이 92.0%, 남성 71.0%로 여성의 취학률이 21% 포인트 더 높다. 미국은 물론 스웨덴(14% 포인트), 프랑스(12% 포인트) 핀란드(12% 포인트), 호주(6% 포인트)도 고등교육기회가 여성에게 더 많이 열려있다. 상대적으로 고등교육기회의 문호가 덜 개방되어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만 여성의 고등교육기회가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6개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성별 분포 또한 여학생 구성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스웨덴,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는 여학생구성비가 55%를 넘어서고 있고 영국과 핀란드 또한 50%를 넘고 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낮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각각 45.3%, 36.2%로, 특히 일본의 경우 여성의 고등교육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전형적인 남성적 영역으로 여학생의 진출이 저조한 공학계열의 여학생구성비를 보면 <그림 2>, 최저 9.8%에서 최고 21.4%의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공학계열의 여학생구성비가 가장 높은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전체 여학생구성비 55.9%와 비교하면 34.5%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의 구성비가 높은 미국(19.9%)과 핀란드(19.4%) 역시 각각 36.3% 포인트, 33.1% 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이들 8개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여학생구성비와 공학계열 여학생구성비간의 관계를 보면, 여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공학계열 여학생구성비 또한 그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여학생구성비가 55.2%에 달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거의 10% 포인트나 더 많은 호주의 경우 공학계열에의 여학생구성비는 15.3%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주 : 미국의 공학계열 구성비는 석사과정 분포임.
독일은 2000년 여름학기 신입여학생구성비임.

〈그림 2〉 고등교육기관 전체 및 공학계열 여학생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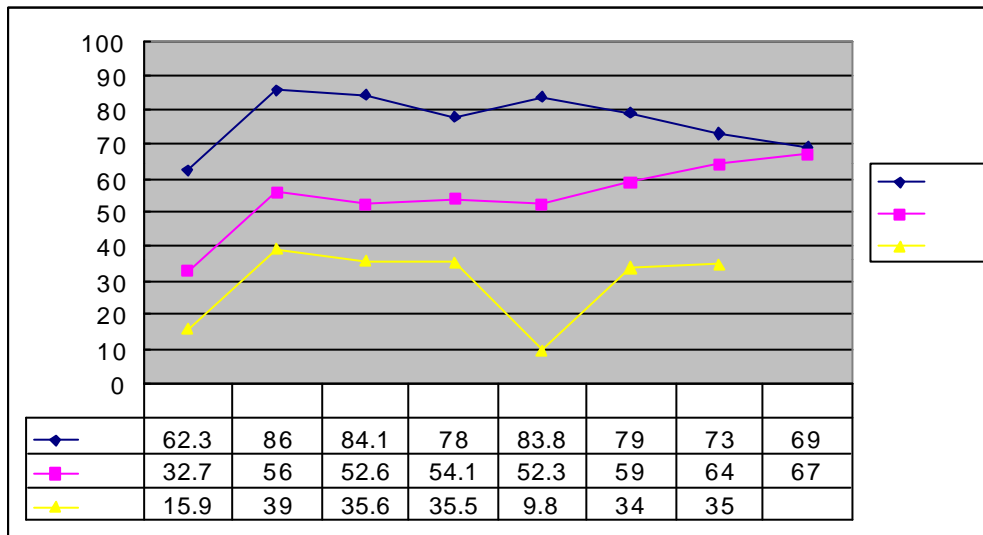
이와는 반대로 여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 전체 여학생구성비를 월등히 상회하는 전공영역들은 전형적인 여성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전공분야들이다. 인문/어문학 전공은 일본, 미국을 비롯 8개국 모두에서 여학생구성비가 가장 높은 3개 전공분야의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보건 등 의학관련 전공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6개국에서, 교육학은 미국, 영국 등 5개국에서, 예술 전공은 일본, 독일에서 높은 여학생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8개 국가에서 여학생구성비가 높은 전공분야가 인문/어문, 교육, 보건, 예술 등 특정 몇몇 분야로 한정되고, 이들 전공이 모두 전형적인 여성적인 분야에 속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의 활발한 여학생 진출이 남성적 영역인 공학계열의 벽을 허물지 못했듯이 여성적 영역에의 여학생 집중 또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에 따른 전공 편중현상은 단지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스웨덴의 과정별 중등교육분포, 호주와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미국의 박사학위 취득자의 계열별 여학생구성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등 및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물론 중등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열별 편중현상은 교과 선택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호주의 경우 12학년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물리와 컴퓨터, 기술, 농업은 남학생이 생물, 예술, 가정은 여학생이 더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

국은 수학과목의 선택에 있어서는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과학과의 경우는 생물, 화학과목은 여학생이 물리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프랑스 역시 여학생들이 수학, 물리, 화학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있으며, 영국도 국가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수학, 과학 및 기술과목을 의무 교과 과정에 포함, 남녀학생 모두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호주, 미국,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수학이나 과학 또는 실과 등의 교과영역에서 학생의 성별에 따라 선택하는 교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핀란드와 영국은 여학생을 위한 물리 특별과정이나 국가 교육과정의 도입과 같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3〉 각국의 학교급별 여교원구성비

학업성취도상의 성별 격차와 관련하여서는 8개국에서 모두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읽기교과와 수학, 과학교과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수학, 과학교과에서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17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며, 읽기교과는 반대로 여학생의 성취수준이 더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간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학생이 읽기교과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양상은 호주와 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각국의 여교원 구성비를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8개국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교원구성비가 낮아지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3>. 초등학교의 경우 일본(62.3%)과 핀란드(69%)를 제외한 6개국이 모두 80% 전후의 높은 여교원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중등교육기관 역시 일본이 가장 낮은 32.7%의 여교원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여교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7개국 모두 중등교육기관 또한 여교원구성비가 5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여교원구성비를 보면, 독일이 가장 낮은 9.8%이고, 그 다음은 일본 15.9%의 순이다.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모두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여교원구성비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서 34%~39%에 달하고 있다.

B. 각국의 성평등 교육정책 비교·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이 유사한 여성교육문제와 성차별적 교육문제를 공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또한 상당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안별로는 정책 대응의 우선 순위와 범위 등에서 국가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국가간 유사한 정책대응을 보이는 사안을 살펴보면, 기술 및 과학, 공학분야로의 여학생 참여 촉진 관련 정책, 교육과정의 성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여교수 지원 정책 등이다. 특히 기술 및 과학, 공학분야로의 여학생 진로 촉진은 전통적 성역할의식의 개선,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성별 분리 수업의 모색, 성관점에 입각한 교수방법의 개선, 동성역할 모델의 제시 및 후견인 제도의 도입 등 교육과정과 교사, 진로 및 직업교육, 공학교육제도,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성평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책적 대응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문제는 공유하면서도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성교육문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과학 및 공학분야로의 여학생 진로 확대문제에 대한 성평등 교육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교육정책도 여성교육문제나 성차별적인 교육문제의 해소와는 직접적인 연계가 약한 남녀평등의식 확산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이러한 성평등 교육정책은 영국을 비롯, 미국, 호주, 독일 등이 모두 성정형적인 진로 선택이 결과적으로 성별 직업 분리현상을 가져오는 데 주목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깨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한편 이들 국가간에도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를 읽을 수 있

다. 일례로 독일은 비전통적인 직업분야에의 여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위한 교육·훈련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수단을 많이 동원하는 반면, 호주는 상대적으로 성별 의식 형성(gender construction)이나 유급 및 무급노동과 관련한 직업 및 노동에 대한 의식의 확장 등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독일과 호주는 남녀공학교육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 등의 교과에서의 성별 분리수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정책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에서는 논란은 많으나 정책적 대응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여교수 비율을 보인 독일의 여교수 중원정책은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드러진 것이었다. 독일은 예비교수과정에서의 여성진입과정에서 중도에 연구나 학업을 그만 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여교수 지원 정책들을 갖고 있다.

또한 성평등 교육정책 추진 수준에서 국가간 차이가 감지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육에서의 성차별 문제의 일차적 대상을 여성으로 상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호주와 영국의 경우 정책의 수혜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교육부문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정책의 추진에서 나아가 교육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우리 나라보다 교육접근에서의 성 평등 정도가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 이들 나라에서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더욱이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남성보다 더 높은 이들 국가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평등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기획의 평등을 단순히 양적 개념에만 의존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 즉 질적인 평등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성평등 교육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8개국의 여성교육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의 높고 낮음

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성별 문제(gender issues)를 갖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와 상당한 정도로 유사함을 확인하게 한다. 1) 여성들은 여성적인 분야로 인식되어온 계열에 몰려 있으며, 남성적 분야로 여겨온 공학, 기술계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2) 수학 및 과학교과 등의 성별 이미지가 강한 교과에 대한 선호도나 학업성취도, 교과에 대한 태도 등에서 성별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3) 교과서를 비롯한 교수자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성정형적인 묘사와 성차별적인 내용 또한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4) 남녀공학교육이 실제로 있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성차별적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 끝으로 초등교육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여교원 구성비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교원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이들 국가와 교육에서의 성별 문제를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음에도, 이들 국가와는 달리 교육에서의 성별 문제에 대한 논의나 여성교육정책의 추진이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OECD 8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정책들은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대로 우리의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과정에 교육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입하는 방식이나 표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사례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성평등 교육정책 방향이나 정책 개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참고문헌

<일본>

- 大橋美枝子(2000), '학교교육-남녀평등교육의 도달점과 과제에 대해,' 일본부인단체연합회(편), 「여성백서 2000 : 평등·개발·평화-21세기로의 과제」, 東京 : ほるぷ.
- 氏原陽子(1996), '중학교에 있어서의 남녀평등과 성차별의 착종,' 『교육사회학연구』 58.
- 伊東良徳(1992), '교과서 속의 성차별과 교사의 문제의식,' 「교육평론」, 545호, pp. 42~45.
- 伊東良徳, 大脇雅子, 紙子達子, 古岡睦子(1991), 「教科書の中の男女差別」, 東京 : 明石書店.
- 池木清(2000), 男女共同参画社会と教育, 東京 : 北樹出版.
- 총리부(1998), 「여성차별철폐조약 실시 상황 제4차 보고서」.
-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2000. 12), <http://www.cao.go.jp/dinjyo/kihon-keikaku>
- 學校教育, http://www.mext.go.jp/b_menu/soshiki2/shisaku/gakkou.htm

21世紀教育新生プラン, http://www.mext.go.jp/a_menu/shougai/21plan/index.html

<미국>

Gender Equity Expert Panel(2001), *Exemplary & Promising Gender Equity Program 2000*.
<http://www.ed.gov/pubs/genderequity>

National Coalition for Woman and Girls in Education(1997), *Report Card on Gender Equity*.
<http://www.edc.org/WomansEquity/resource/title9/report>

Norma V. Cantu(1997), *Title IX : 25 Years of Progress*. <http://www.ed.gov/pubs>

Richard W. Riley & Madeleine M. Kunin(1996), *Ten Years of Advancement 1985~95 : Woman & Girls in Education*. <http://www.ed.gov/pubs/10yrs> *Resources : Programs for Girls*, <http://www.academic.org>

<http://www.ed.gov/offices/OERI>

<http://www.edequity.org>

<영국>

영국(1997), 유엔 세계여성 행동강령 이행 1년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1998), *Setting the Agenda for Equality*.
<http://www.EOC.org.uk>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2000), *Sex Equality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EOC*.
<http://www.EOC.org.uk>

Linda croxford(2000), 'Gender and National Curricular. *Gender, Policy and Educational Change -Shifting agendas in the UK and Europ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Woma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nlogy."
<http://www.set4.woman.gov.uk>

<호주>

한국여성개발원(2000), 호주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1995).

Australian Education Council(1994),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Education of Girls 1993~97*.

Australia Now. <http://www.abs.gov.au/ausstats>

DETYA(2000b), *Women in IT-What Are the Barriers?*, <http://www.detya.gov.au/schools>

DETYA(2000), *Selected Higher Education Statistics*, <http://www.detya.gov.au/schools>

DETYA(1999), *Summary of School Based Work in Gender*, <http://www.detya.gov.au/schools>
 MCEETYA(1996), *A Framework for Action on Gender Equity in Schooling*.
 OSW(2000),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Australian Government Response 2000*. <http://www.osw.dpmc.gov.au/index.html>

<독일>

독일국가행동계획(1996), www.un.drg/esa/gopher-data/conf/fwcw/natrep/NatActPlans/germany/GerMA1p
 Frauen in Studium und Hochschule. http://www.bmbf.de/249_1356.html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Baden-Württemberg(2001), *Handbuch für Lehrerinnen und Lehrer in Baden-Württemberg*
<http://www.statistik-bund.de/basis/e/biwiki/schulstab6.htm>
 Landeskongress der Frauenbeauftragten an Fachhochschulen in Baden-Württemberg(2000)
 Organisationsstruktur des BMBF. <http://www.bmbf.de/189~476.html>
 Statistisches Bundesamt Hochschulstatistik(1999).

<프랑스>

Agnes Boussuge(1997), “교재에서의 여성차별주의.”
 Anne Vaisman(1998), “여학생과 남학생, 그들은 차별받고 있다,” 『가정매거진』 129호.
 Annick Durand-Delvigne(1999), “남녀공학제도의 모순,” 『교육의 세계』 275호.
 Gaelle Fouere(1999), “여학생들이여, 경쟁에서 뒤쳐질 것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교육의 세계』 271호.
 Insee(1995), “고등교육,” 『여성들』.
 Luc Bronner(2001),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 강화를 제안하기 위한 보고서,” 르몽드.
 Marie Duru-Bellat(1999), “부주의로 인한 성차별주의,” 『교육의 세계』 275호.
 Michele Andre(1989),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자,” 『여학생 지도법』, 『여성의 권리』 3호.
 Nicole Mosconi(2000), “남녀공학은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교육의 세계』 283호.

<스웨덴>

스웨덴(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국가보고서.

The Swedish Institute(1997), *Fact Sheet on Sweden*.

The Swedish Institute(1999), *Sweden - The Equal Way*.

The Swedish school system, "Equality in the schools," <http://www.skoverket.se/english/system/equality.shtml>

"Swedish Government Policy on Gender Equality : Into the 21 Century," <http://www.naring.regeringen/fragor/jamstalldhet>

<핀란드>

사회·보건부(1997), 「북경행동강령에 따른 핀란드정부의 성평등 촉진을 위한 행동 계획」.

사회·보건부(1999), *Mainstreaming Equality*, Final Report on the Plan of Action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of the Government of Finland.

사회·보건부(1990), *Finnish Report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an to the CEDAW Committee*, Vienna 29.2 - 23.1989. 15.

핀란드(1999), 「북경행동강령 국가실행 보고서」.

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1999), *A millennium of Gender Equality*.

<http://www.tasa-arvo.fi/www-eng/council/index.html>